

가장 값진 유산

젊어서부터 피나는 노력과 근검절약으로 큰 재산을 모은 스페인의 한 사업자가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어서 조카를 데리고 살았다.

그러나 그 조카는 노력하는 삼촌과는 달리 청년이 되도록 놀기만 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삼촌은 모든 재산을 분명히 나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카의 생각을 눈치 챈 삼촌은 “애야, 내가 너한테는 내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에 적었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조카에게 일러주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조카는 자기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공증인을 찾아갔다. 공증인은 삼촌이 남긴 유서를 공개했다.

“사랑하는 내 조카야, 너에게는 성경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1파운드 50센트를 유산으로 남긴다. 그러니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확고한 진리 위에 짓기 바란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사회 자선사업에 기부한다.”

뜻밖에도 이러한 유서에 조카는 몹시 실망했다. 그러나 삼촌의 그 유산으로 성경 책 한 권을 사서 열심히 읽고 새로운 일을 찾아 노력한 결과 마침내 삼촌과 같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유산만을 바라던 조카를 삼촌의 지혜와 재치로서 인생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성공하게 한 것이다.